

박여범의 소소한 일상

빠꾸기는 이렇게 올었다

많은 시간이 흘렀다. 저만치 다가올 것 같은 교향의 추억, 그 한 자리를 빠꾸기가 차지한다.



박여범

음북중학교교감·시인 문학박사·문학평론가

먹는다 / 분명히 내 임이건만 간수 하기가 쉽지 않다 / 짐을 자다가도 잠꼬대하는 일 /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숙제가 일단속이다.

-송태중, '세상을 살아가면서' 145~146쪽, 전문-

위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, 교향 수 없는 병의 흉악함은 바로 '자신'에게 있다는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.

그러나 여기까지는 좋다. 그 일제 순, 숨이 숨을 붙여가면 꼭 부제가 생긴다.

고칠 수 없는 병이 가끔 도진다. / 입이 심심하다고 주전부리를 찾

고칠 수 없는 병이 가끔 도진다. / 입이 심심하다고 주전부리를 찾 / 입맛이 없을 땐 의식하곤 한다

독자재언

바쁜 출근길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가슴이 절명 내려앉은 일 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.

운전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진로를 바꾸게 되면 대형 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, 갑자기 끼

수 있는 운전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.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모 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, 우회전, 횡

잊지 말고 '방향지시등' 꼭 켜주세요

올바른 작동은 ▲일반도로에서는 진 로변경 30m 전 지점부터 최소 3초 이상(약 5회), ▲고속도로에서는 진로변 경 100m 전 지점부터 최소 5초 이상

사설

대한방직 활용 권고안 문제

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3만 여㎡의 개발 방향에 촉각이 곤두 서고 있다.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

앞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금융과 IT 등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도 일자리 창출 공간, 백화점과 호텔, 컨벤션

대한방직 토지 소유주인 자광이 제출한 개발안과는 조금 다르다. 세 가지 안을 두고 시민참여단

최종 권고안에는 시민들이 세 가 지 안 가운데 어떤 안을 선호하는 지가 담긴다.

관급공사 개입 협의 정읍시의원

전북 도내 일부 시군의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가 여전하다. 인기 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 을 상실하는 의원들도 종종 있다.

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 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, 혐 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

공에 넘어가게 된다. 전주시는 권 고안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인 (주) 자광과 개발 방식 등에 대한 협상

앞서 자광은 2017년 이 부지를 약 2,000억 원에 사들였다. 그리고 세계 5위에 해당하는 153층(470m) 높이의 엑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천 가구 규모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내 놓았다.

그러면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다.

한편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도 맞닿아 있 다.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내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, 백화점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도 지방재 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번째 행정 절차를 본격화 했다.

관급공사 수수 비리는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. 로비 의혹과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된 다.

공사 수수 과정에서 벗어지는 갖가지 비리와 잠음은 발주 기관 과 건설업체 사이에 검은 뒷거래 로 이뤄진다.

특히 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수주 난을 겪게 되면서 부정당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공사 수주전에 가세하고 있다.

업체가 담합하거나 공무원과 업 자가 유착되면 비리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. 공직자와 건설업체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 렘이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다.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. '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'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인간중심 · 노력중심 · 지역중심 전주매일